

【논 문】

## 만주국 시기 일본의 여성 동원과 만주 이민

－ 만주개척여숙(滿洲開拓女塾) 사례를 중심으로

곽규환\*, 김해림\*\*

### Ⅰ 차 례 Ⅰ

- I. 서론
- II. 만주개척여숙 설립과 발전
- III. <개척여숙경영방침(開拓女塾經營方針)>과 만주개척여숙 역할 변화
- IV. 결론

### 국문초록

만주개척여숙은 만주로 이주한 일본 남성 개척민의 배우자의 조달과 양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일본·만주국 정부가 기획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했다. 본 논문은 만주개척여숙의 설립, 운영, 변화, 실태를 관련 정책 자료와 입숙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만주개척여숙의 실체와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 동원 방식과 특징을 검토한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시작된 일본에서 만주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사업은 이후 현지 개척단원(일본인 남성)들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대륙신부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륙신부 구상은 남성 개척단원들의 개척지 영구 정착을 통한 이민사업 안정화와 만주국 내 민족순혈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남성 이민자 모집도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만주로의 ‘결혼 이민’ 대상자인 여성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동군은 만주국 현지에 여성 배우자 훈련소인 ‘만주개척여숙’ 설립을 기획한다. 훈련소 입소 대상자 범위를 일본 남성 개척단원의 예비 신부 뿐 아니라

\* 길림대학교 공공외교학원 박사과정.

\*\* 길림대학교 문학원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만주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으로까지 넓혀 여성 본인의 참여와 가족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만주 이민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효율성에 대해 우려했던 일본 정부는 여성 대량 송출을 위한 만주 현지 훈련소 설립 계획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만주개척여숙의 핵심 인물 쿠마이 타케요(熊井竹代)의 활약으로 안배개척여숙(安拜開拓女塾)이 높은 성혼률을 달성하자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달라졌다. 이후 만주개척여숙은 194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설됐다.

당시 여성척식지도자들은 결혼 이민자 모집을 위해 결혼의무조건을 축소·은폐하고, 만주개척여숙이 빈농출신의 여성들의 배움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고 선전했다. 그래서 상당수 여성들은 결혼의무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만주개척여숙에 입숙한다. 만주개척여숙 사업의 절정기(1940년 ~1943년)에 입숙 여성들은 불충분한 시설과 교육과정, 지속적인 결혼 압박으로 고통을 받았다. 1943년 후반부터 전황 악화로 남성 개척민의 전장 투입이 시작했다. 이후 만주개척여숙 입숙 여성들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여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어 : 대륙신부, 여자척식사업, 만주개척여숙, 관동군, 熊井竹代(쿠마이 타케요), 만주국, 여성동원, 순혈주의

## I. 서론

본 논문은 만주국 시기 대륙신부의 현지 훈련소인 ‘만주개척여숙<sup>1)</sup>’의 설립, 운영, 성격변화를 다룬다. 만주개척여숙은 만주로 이주한 일본 남성 개척민의 배우자를 조달·양성하기 위해 관동군이 기획하고 개척단장 혹은 여자척식지도자에 의해서 설립되어 일만 양국 정부가 보조한 기관이다.

만주 이민사업 시범기인 1932년 무장 이민 시기, 많은 일본인 남성 이민

1) 관동군의 만주 현지 남성 개척민의 배우자 훈련소 설립 구상에 따라서 1940년에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개척여숙(開拓女塾), 신부여숙(花嫁女塾), 개척신부숙(開拓花嫁塾), 만몽개척여자훈련소(滿蒙開拓女子訓練所), 여자의용대훈련소(女子義勇隊訓練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에서 적시한 공식명칭인 ‘개척여숙’을 주로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만주국에 세워진 현지 배우자 훈련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주개척여숙(滿洲開拓女塾)’이라고 표기한다.

자들은 황무지 개간과 개척지 구축의 어려움, 항일무장단체의 잦은 습격, 열악한 현지 환경에 시달렸다. 이민사업 초기 단원들의 상명 불복 및 이탈이 빈번하자 도미야 가네요(東宮鐵男)<sup>2)</sup>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륙신부(大陸の花嫁)로 지칭되는 여성 이민사업을 구상한다. 도미야 가네요는 여성 이민자의 확보로 단원들의 영구적인 만주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륙신부의 역할은 미혼 남성 단원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개척지 개간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초기 대륙신부 모집은 미혼 단원들 혹은 간부들이 고향에서 신부를 모집하는 민간·자발적인 차원에 그쳤다. 그러나 1937년 16세~19세의 미혼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滿洲開拓靑少年義勇隊)가 발족하며 만주 이민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기존의 민간·자발적 차원의 신부 소집으로는 증가하는 남성 이민자들의 신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직접 신부 모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부 모집, 교육, 알선, 도만(渡滿) 과정을 포함하는 여자척식사업(女子開拓事業)이 구축됐다. 그러나 여자척식(무)훈련소(女子拓殖(務)訓練所)나 여자척식강습회(女子拓殖講習會)를 중심으로 한 일본 본토에서의 신부 모집은 쉽지 않았다. 그러자 관동군은 1939년 말 무렵부터 만주국 개척단 내에 현지 신부 훈련소를 설립하여 신부예정자, 신부 예비대를 모집하고 동시에 의용대의 기숙 생활을 돌봐줄 료보(寮母)<sup>3)</sup>를 입식시키려 했다. 이 구상에 따라서 1940년 7월, 최초의 만주개척여숙인 안배개척여숙(安拜開拓女塾)이 안배개척단(安拜開拓團)에 설립된다.

- 
- 2) 이민단 현지 정착을 담당했던 관동군 대위 도미야 가네요(1892-1937)는 쇼와3년 장작림폭 살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져 있다. 도미야는 입식한 이민남성들의 위로·위안을 할 배우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척민 배우자 모집을 선전하기 위해, '신일본의 소녀여, 대륙으로 시집오라(新日本の小女よ 大陸嫁け)'라는 시를 지어 포스터에 실었다. 읍면 사무소에 붙여진 이 선전 포스터로 전국에서 130명이 신부모집에 응모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대륙신부 모집 발상은, 이후 정책으로 발전하여 많은 일본 농촌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杉山春, 1996, 『滿洲女塾』, 新潮社 20쪽;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づられたか：戦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173-174, 248, 255쪽.
- 3) 만주 개척지에서 의용대 단원들을 돌보는 일을 한 여성들로, 고향의 어머니·누나를 현지에서 표상·역할했다. 대부분 30세에서 50세였다. 료보는 의용대 여성지도원(義勇隊女性指導員) 혹은 의용군 여자지도원(義勇軍女性指導員)으로 불렸다.

안배개척여숙 설립은 개척여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쿠마이 타케요(熊井竹代)가 주도했다. 시범여숙이었던 안배개척여숙의 입숙생 대부분이 개척지에 결혼 입식하는 성과를 거둔 후 개척여숙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1941년 개척신부숙 5개소 증설이 결정됐고,<sup>4)</sup> 개척여숙 설립의 절정기인 1943년에는 만주국 전체 개척단 1000개소 중에서 16개소에 개척여숙이 설립된다. 1944년 제정된 <개척여숙경영방침(開拓女塾經營方針)>(이하 경영방침)에 첨부된 개척여숙현황을 보면, 1941~1942년 2년간 총 430명 개척여숙 입소자 성혼율이 약 90%에 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방침’에서는 1944년에 추가로 20개소(1개소 당 50명의 인원을 수용) 설립 및 1000명의 신부 훈련을 계획했다.

만주개척여숙을 통해 모집, 교육, 알선, 송출 등 체계적으로 진행됐던 당시 여성척식사업의 실체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척식사업의 체계가 만주개척여숙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주개척여숙은 더 높은 성혼률을 위해 만주 현지에서 운용한 대륙신부 조달·양성소다. 따라서 만주개척여숙에 대한 검토는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 동원과 만주 이민 정책에 내포된 일본 순혈주의와 폭력성에 대한 보다 다각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만주개척여숙 관련 국내의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경우 일본인 만주 농업 이민 혹은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에 대한 연구는 상당하지만<sup>5)</sup>, 대륙신부 정책이나 대륙신부 훈련소인

4) 滿州國通信社, 1941, 『配偶者の訓育』, 藤澤忠雄,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 96쪽.

5) 안지나, 2017,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 : 간노 마사오(菅野正男) 『흙과 싸우다(土と戦ふ)』(1940)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안지나, 201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 :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1; 김려실, 2013, 『만주영화협회의 ‘계민영화(啓民映畫)’ 연구 :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7; 최경순, 2012, 『(서평) 만주 개척이민사에서도 소외된 일본의 피차별부락민 : 高橋幸春, 1995, 『絶望の移民史-滿洲へ送られた「被差別部落」の記録』, 毎日新聞社(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4; 김영숙, 2013,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2.

여자척식훈련소, 만주개척여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up>6)</sup> 중국은 대륙신부 정책에 대한 다량의 연구에서 만주개척여숙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없다.<sup>7)</sup> 이에 반해 일본은 만주국 시기 농업 이민, 신부훈련소 등 대륙신부 관련 연구가 상당수 존재하고 사회적 관심도 적잖다.<sup>8)</sup>

오오모리 나오키(大森直樹)의 편서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戦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1996)는 만주개척여숙 설립 배경 및 주요 정책, 초기 입숙자 증언 등을 정리했다. 하지만 분석시기가 만주개척여숙 초반기에 국한돼,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된 만주개척여숙 관련 정책 및 실태를 다루지 못했다. 또한 만주개척여숙만을 다룬 연구로는 스기야마 하루(杉山春)의 『滿洲女塾』(1996)이 있다. 만주개척여숙 입숙자들의 증언을 청취·수

- 6) 2011년, 야마자키 토모코(山崎朋子)의 『경계에 선 여인들』이 한국에 번역·출판됐다. 이 책은 조선의 내선신부와 궤를 같이하는 대륙신부 정책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 7) 중국 학계에서 만주개척여숙을 언급할 때 주로 인용하는 학자는 스연춘(石艶春)이다. 그는 일본의 만주 이민정책 전반을 연구했는데 이때 일본 여성의 만주이민도 검토했다. 石艶春, 2011, 『日本“滿洲移民”社會生活研究』, 高等教育出版社. 또한 대륙신부에 대한 중국 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張洁, 孟月明, 2011, 『東北淪陷時期日本“大陸新娘”政策述評』, 『人民論壇』; 王青, 2011, 『日本侵華期間“大陸新娘”政策的提出』, 『首都師範大學學報』; 孟月明, 張洁, 2012, 『日本“開拓團”中“大陸新娘”』, 『炎黃春秋』; 石艶春, 2010, 『日本“滿洲移民”中的女性』, 『社會科學輯刊』; 李淑娟, 王希亮, 2015, 『日本的大陸擴張與“滿洲開拓”女性』, 『學術交流』; 張曉麗, 2015, 『用“大陸新娘”安撫移民』, 『遼寧日報』; 孫炜, 2016, 『抗日戰爭時期日本的“大陸花嫁”』, 『史學月刊』; 石艶春, 2014, 『日本“滿洲移民”時期的庄內型移民——以大和村爲例』, 『齊齊哈爾大學學報』.
- 8)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중국 내 잔류부인·고아, 만주 이민사업 및 대륙신부 정책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는 대륙신부 정책 및 관련 기관에 참가하였던 여성들에 대한 르포르타주 형태의 연구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만주로 보내진 일본 여성(대륙신부)을 연구한 친노모리 타다시(陳野守正)의 『大陸の花嫁—「滿洲」に送られた女たち』, 전쟁과 성차별의 입장에서 대륙신부를 분석한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의 『從軍慰安婦—內鮮結婚』와 카노 미키요(加納實紀代)의 『滿洲と女たち』가 있다. 또한 2012년, 중일 관계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며 만주개척단과 대륙신부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연달아 방영된다. 2012년 4월 NHK 특별제작드라마 《開拓者たち》, 10월에는 TBS 드라마 《強行歸國—忘れ去られた花嫁たち》, 2015년 TBS 개국 60주년 기념 드라마 《紅十字—女人們的紅紙信》 등이 있다. 2017년 NHK는 전후 70주년을 맞아 2017년 구로가와 개척단(黒川開拓団) 참가자들의 패전 후 필사의 도피 과정을 소개하는 「告白—滿蒙開拓団の女たち—」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대륙신부(大陸の花嫁)로 모집된 개척단 내의 여성 15명(미혼)이 패전 후 소련 병사에게 성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국내의 대륙신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됐다. 같은 해 12월4일, NNN은 개척단 내 대륙신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記憶の澱」을 방영한다.

집하고 관련 자료를 엮어 만주개척여숙 설립과정과 입숙생들의 입숙 동기, 입숙 생활, 패전이후의 생활 등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만주개척여숙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滿洲女塾』은 1943년도 전후에 쿠마이 타케요가 운영한 개척여숙에 입숙한 여성들의 증언만을 중심으로 만주개척여숙을 해석한다. 그러나 개척단원들의 전장 투입이 가속화 된 1944년을 기점으로 만주개척여숙의 역할은 대륙신부 양성과 조달에서 다양한 여성성 노동력 제공으로 변화했다. 또한 만주개척여숙은 위탁 운영됐기 때문에 숙장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소마다 혼련 과정과 결혼 압박의 내용과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滿洲女塾』은 경험자들의 증언을 통해 만주개척여숙의 실태를 일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만주개척여숙의 총체적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만주개척여숙 관련 선행연구들은 초기 만주개척여숙 혹은 일부 만주개척여숙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만주개척여숙 관련 정책·규모 변화와 원인, 만주개척여숙 운영의 성격, 각 소 별 운영 실태의 차이, 만주개척여숙의 역할 변화와 원인 등은 결여돼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자료와 증언자료<sup>9)</sup>를 종합하여 만주개척여숙의 설립과 증설, 운영과 성격 변화 등을 일별한다. 만주개척여숙 관련 정책의 수립 배경과 핵심 내용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입숙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해서 정책 수립자·시행자들의 목표와 참여자들의 경험을 교차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설립 시기(1940년) 및 전성기(1943년)만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만주개척여숙의 실태와 본질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9) 일본에서는 대륙신부 여성들의 구술사나 개인사(自分史) 연구 성과가 축적 돼 관련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웹사이트 'watashi의Next Waveを探して'는 지난 100년 동안의 주요 역사적 사안에 관련한 일본 여성들의 구술을 정리·공개하고 있다. 대륙신부에 참여한 여성들과 개척여숙에 입숙했던 여성 및 잔류부인·고이들의 구술도 존재한다. <https://nextwave100.net> 참고.

## II. 만주개척여숙 설립과 발전

### 1. 만주개척여숙의 설립

1932년 2월부터 실시된 대륙신부(大陸の花嫁) 사업은 만주 개척 이민 정책 확대에 따라 정부 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개척단원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이민 민간(단원)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대륙신부 모집 활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됐다. 또한 대륙신부 관련 정책들이 차례차례 제정되면서 신부 모집과 교육, 결혼 알선, 도만이라는 일련의 신부 송출 과정이 정립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륙신부를 모집하기 위한 여자척식강습회가 전국에서 개최됐다. 또한 대륙신부 모집과 정책 홍보를 담당할 여자척식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여자척식지도자강습회도 실시된다. 1938년부터는 23개 부현에서 여자척식강습회, 만주농업이민신부강습회, 만주이민좌담회 등이 차례로 열렸다.<sup>10)</sup>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자 양성 사업의 진행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강습회·강습소 수료 후 도만을 결정한 여성들의 비율이 수위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다. 1942년 척무성 척북국 보도과(拓務省拓北局輔導課)가 여자척식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로 작성한 <여자척식지도자제요(女子拓殖指導者提要)>을 살펴보면 신부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척북국은 1939년~1940년 말까지 실시된 여자척식강습회 수강자의 수료 후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1〉 12부현 여자척식강습회 수강자 상황 조사(1939~1940년 12월 말)

구분	인원	백분율
개척농민의 부인	483명	10.2%
개척농민의 부인으로 알선 중	40명	
만주 또는 다른 지방에서 결혼	81명	1.6%

10) 權狀態, 1941, 『第六女子拓殖狀況』, 『滿洲開拓民概要』, 『滿洲開拓資料』; 第2輯, 拓務省拓北局, 54쪽.

구분	인원	백분율
일본 국내 결혼	833명	16.1%
미혼 또는 기타	3,713명	72.1%
여자척식강습회 총 수강	5,150명	100%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殖省拓北局, 1942, 172~173쪽 재구성.

이 조사 결과 ‘대륙신부’가 된 인원은 총 523명으로, 전체 수강자의 10%에 불과했다. 중국학자 스옌춘은 척북국의 이 조사 결과를 “여자척식훈련소에서 대륙신부 선발은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부로의 선출은 일종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석한다.<sup>11)</sup> 하지만 척북국은 내지 훈련소 신부 앞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이후부터 신부 수요 규모의 배수를 여자척식강습회에 참가시킬 것’을 강조하고 ‘상당수의 미혼여자를 수강시키는 계획’을 각 주최자에게 요청했다.<sup>12)</sup> 또한 각 부현 별로 필요한 신부수를 분담하여 맞선에 참여할 수강자를 확보하려는 지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감안해 볼 때, 대륙신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강압적·계획적·전폭적 선발을 도모한 정황이 더 많다.<sup>13)</sup> 많은 수강생들이 엄중한 전시 상황, 엄혹한 환경의 황무지 개간 사업에 대해 부담을 가졌고, 수강생 가족의 반대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신부 지망생들이 강습회 수료 후 도만 결정을 반복했다. 이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 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女子拓殖事業對策要綱) 별지3에 첨부된 <여자척식강습회요령(女子拓殖講習會要領)>이다. 여자척식강습회요령에서는 ‘미혼여자에 대한 여자척식강습회’와 ‘일반 부인에 대한 여

11) 石艶春, 2011, 『日本“滿洲移民”社會生活研究』, 高等教育出版社, 114쪽.

12)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171쪽.

13) 만주국통신사는 배우자초청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만주 결혼 입식에 반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계몽 활동이 배우자 확보에 중요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배우자가 될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부녀자의 대량 입식은 개척지의 조화로운 건설에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양성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공작 외에, 어머니누이(母姊)방면에서의 억제에 대한 공작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에 대한 계몽 선전을 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운동의 전면적 전개를 일본 측에 요망한다.” 滿州國通信社, 康徳11年·昭和19年版, 『配偶者招致訓練』,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0쪽.

자척식강습회’ 실시를 주문했다. 전자는 ‘만주개척민배우자’의 적극적 양성을 위한 강습회, 후자는 ‘(신부 후보자)어머니의 계몽을 중심으로 하는’ 강습회를 뜻한다. ‘어머니의 계몽’은 강습회장에서 대륙신부를 지망했던 수강자가 ‘어머니나 조모의 반대’를 이유로 도만 결정을 종종 반복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였다.<sup>14)</sup>

이처럼 당시 만주 개척민 배우자 확보는 쉽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과 만주국은 제각기 대책을 수립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1939년 1월 8일 척무성, 농림성, 문부성은 <신부백만인대륙송출계획(花嫁100万人大陸送出計畫)>을, 같은 해 1월10일 관동군은 <만주개척근본정책기본요강안(滿洲開拓根本政策基本要綱案)>(이하 관동군원안)을 작성한다. 관동군과 만주국은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가 발족된 1938년 즈음부터 대규모의 대륙신부 양성을 위한 현지신부 훈련 시설을 구상했던 것이다. 관동군원안의 참고안에서는 개척여숙설립 목적이 명시됐다.

<표2> 만주개척근본정책기본요강안 신부(참고안 2)

구분	내용
방침	만주국에 여자(척식) 훈련소를 설치하여 우수한 신부를 다수 양성하고자 함
요령1	여자(척식)훈련소에 대해서는 대륙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생활지도를 할 것
요령2	여자훈련소에 입소 할 수 있는 여성은 아래와 같다. 2.1. 가족초청에 의해 이민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혼자 및 신부결정자 2.2. 미혼자로서 이민신부를 지망하는 자 2.3. 대륙의식함양과 현지생활체험을 하고자 하는 여자단체 2.4. 훈련소에 근무하는 여자
요령3	훈련기간은 대체로 2개월로 할 것
요령4	내지에서의 신부양성, 여자훈련과 연계하여 대량 신부양성에 이바지할 것

출처: 滿洲拓殖公社東京支社, 1939, 『付録』, 『滿洲開拓政策に關する内地側會議要録』, 46쪽;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225쪽 재인용 및 재구성.

14) 『開拓』, 1941년 4월, 98~99쪽. 대륙신부 후보자 어머니에 대한 강습회는, 대륙신부의 어머니·가족들에게 만주 결혼 이민을 선전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신부를 공급하려는 궁여지책이었다. 따라서 스넨춘의 해석은 대륙신부 사업의 전반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책적 고민을 바탕으로 1939년 12월 22일, 일본과 만주국 양국은 20개년 100만호송출계획(20ヶ年間100萬戶送出計畫)을 집행할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이하 기본요강)을 제정했다. 기본요강 참고자료 11항의 여자지도훈련시설 관련 문건(女子指導訓練施設に關する件)은 “만주국은 필요에 응하여 현지에 여자 훈련소를 설치하고 현지에 대한 생활체험을 얻고자 하는 일본 내지인 여자 또는 청년의용대훈련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여성의 훈련에 이바지 할 것<sup>15)</sup>”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관동군원안의 “대량 신부양성”이란 문구를 완곡하게 풀어쓴다. 일본 현지 여성들의 반감을 고려해 노골적인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동군원안이 제시된 후인 1939년 가을, 동안성 미산현(東安省 密山縣) 북오도강(北五道崗)개척단의 단장 쿠마가야(熊谷)는 개척총국장인 유키 세타로(結城清太郎)<sup>16)</sup>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만주 최초의 시범적 입소훈련을 실시했다.<sup>17)</sup> 단장 쿠마가야가 입숙한 7명을 직접 훈련시켰고 7명 모두 개척단원과 결혼한다. 만주개척여숙 관련 정책이 구상되던 1939년에 시범사례가 시행된 것이다. 야마가타현(山形縣)출신 개척민으로 구성된 북오도강개척단은 나가노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개척민을 배출한 지역이었다. 당시 단장이었던 쿠마가야가 어떤 의도로 여성배우자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척민 수가 많았던 만큼 개척단 내 배우자 확보가 중요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어서 아키타현(秋田縣) 출신의 쿠마이 타케요(熊井竹代)<sup>18)</sup>가 1939

15) 滿洲國通信社, 康徳7年・昭和15年版, 『十一 女子指導訓練施設に關する件』,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 『滿洲開拓年鑑』 1, 1996,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第31卷, 不二出版, 29쪽.

16) 개척총국장 유키 세타로(結城清太郎)은 만주국 건국 시기 만철에서 만주국으로 전입하여 감찰원총무처장, 국부건설국 총무처장(國都建設局總務處長)을 역임한 후 1936년 8월 빈장성(濱江省) 공서총무청장(公署總務廳長)에 부임, 1937년 7월부터 빈장성 차장(次長)으로 근무했다. 이후 1939년 1월 1일 개설된 만주국 산업부 개척총국의 총국장으로 부임한다.

17) 滿洲國通信社, 1941, 『配偶者の 訓育』, 藤澤忠雄, 1992,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 96쪽.

18) 쿠마이 타케요(熊井竹代, 1888~1959) : 개척여숙의 창시자로 불린다. 부농의 차녀(일곱남매 중 넷째)로 아키타현(秋田縣) 키타아키타군(北秋田郡)에서 출생했다. 쿠마이 마타하치로(熊井又八郎, 동경제대 법학부 출신으로 여성계몽잡지 『秋田婦人』를 창간)의 집에 하숙하며 여권(女權)을 인식하고 훗날 쿠마이 마타하치로와 결혼했다. 그녀는 내원(內原, 가

년 여름 만주를 시찰하고 당국의 동의를 얻어 1940년 7월 10일, 만주국 베이안성(北安省) 테리현(鐵驪縣) 안배개척단(安拜開拓團)에 안배개척여숙(安拜開拓女塾)을 설립했다.<sup>19)</sup> 그녀는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와 히로타 고키(廣田弘毅)에게 영향을 받아 만주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그녀는 만주 시찰 당시 개척지 신부 문제를 인식하고, 개척민 신부 양성에는 현지 훈련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1940년 7월 쿠마이 타케요는 안배개척여숙 제1기생 23명을 인솔해서 니가타에서 만주로 건너갔다. 안배개척여숙 숙장으로 설립과 운영을 담당했던 쿠마이 타케요는 입숙생들에게 집요하게 결혼을 제안했다.<sup>20)</sup> 만주에 가면 학벌이나 가정환경 같은 조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로 안배개척여숙에 입숙한 아미나카 사치코(山中幸子)의 경우, 입숙 후 결혼의무조건을 알게 된 후 귀국하고 싶었지만 귀국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만주에서도 자신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하며 입숙을 후회했다.<sup>21)</sup> 전통적인 맞선결혼에서 연애결혼이 늘어가고 있었던 당시, 결혼 강요는 입숙생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숙생들은 귀국 여비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귀국 이후 만주 이민자 출신

---

토간지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일본국민고등학교. 이후 의용대의 훈련소가 세워짐) 방문을 계기로 만주개척사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40년 안배개척여숙, 1942년 오창개척여숙, 1943년 발리여자의용대(勃利女子義勇隊)를 거쳐 1944년 신경개척여숙을 설립한다. 그녀는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에 정착하여 패전 직전까지 개척여숙 설립과 입숙생 모집을 주도했다. 일본에서 진행된 그녀의 개척여숙 입숙 선전에 감동을 받고 입숙을 결정한 여성들도 많았다. 또한 일부 입숙생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당당한 그녀를 동경하기도 했다. 쿠마이 타케요는 가정 방문도 불사하며 부모를 설득하는 등 여성들의 입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입숙한 여성들에게는 부단하게 결혼을 강권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결혼에 동의한 여성들과 결혼을 거부 혹은 망설이는 여성들을 차별했고 이런 압력 때문에 결국 결혼을 결정한 여성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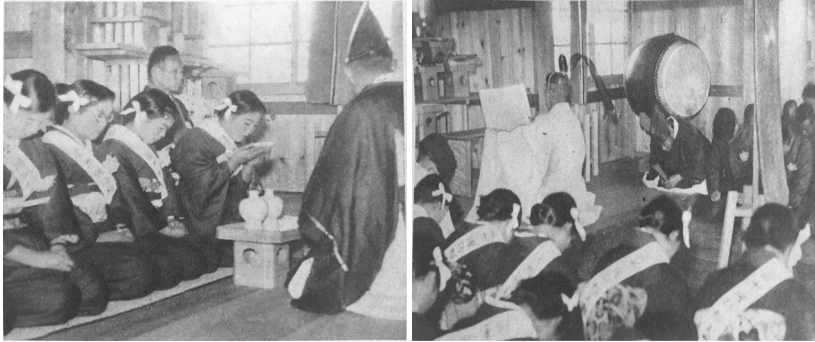
19) 滿洲移住協會發行, 1940, 『新滿州』 第四卷第一二號, 124~127쪽;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戦時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227쪽 재인용.

20) 안배개척여숙에서 도만과정 혹은 입숙 후에 인지한 결혼의무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가 나뉘어 싸움이 나기도 했다. 결혼에 부정적인 여성들과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여성들 사이의 다툼이었다. 분란이 발생하자 숙장 쿠마이 타케요는 성경 구절 등을 인용하며 혼계 하였으나 논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杉山春, 1996, 앞의 책, 79쪽.

21) 杉山春, 1996, 앞의 책, 109~113쪽.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컸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받아들였다.<sup>22)</sup> 이 결과 1940년 12월 8일 안배개척여숙 1기생 중 총 18명이 결혼하여 개척단에 입식한다.

〈사진1,2〉 테리신사(鐵羅神社)에서의 안배개척여숙 1기 합동결혼식(1940년 12월 8일)



출처: 情報局編輯, 1940, 《寫真週報》 第148號, 內閣印刷局印刷發行, 8쪽.

당시 쿠마이 타케요가 운영했던 안배개척여숙의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8명이 결혼 입식했던 당시 성과는 양으로는 적어보일지 모르지만 시범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sup>23)</sup> 이에 따라 만주개척여숙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본·만주국 정부의 입장이 선회한다. 만주개척여숙을 통해서 만주 개척단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시범단계의 성과에 힘입어 2개소 외에 추가로 5개소를 증설하여 200명에서 400명의 대륙신부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만주개척여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1941년도에도 안배개척여숙은 아래의 표와 같이 75%의 높은 성혼율을 달성했다. 당시 숙장은 쿠마이 타케요였다.

22) 안배개척여숙 2기생 치도리(ちどり)는 “남은 자와 돌아간 자의 차이는 돈이었다. 나는 집에 돈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79~80쪽.

23) 滿州國通信社, 1941, 앞의 책, 96쪽 참고.

〈표3〉 안배개척여숙 제2기생(1941년도)의 동향

출신지	입숙자수	신부입식자수	귀국자수
秋田縣	3	3	0
岩手縣	1	1	0
宮城縣	12	11	1
東京縣	1	0	1
兩山縣	3	0	3
합계	20	15	5

출처: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づられたか: 戦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77쪽.

만주개척여숙 시설은 만주이주협회가 발행한 계몽지 『신만주(新滿州)』에 실린 안배개척여숙에 대한 르포 기사와 입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만화가이자 수목화가인 사카모토 가즈(阪本牙城, 1895-1973)는 『신만주(新滿州)』 1940년 12월호에서 안배개척여숙의 내부 모습과 당시 입숙생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sup>24)</sup>

숙소는 50조의 큰방(大廣間)이다. 막 이사한터라 어수선하지만 신단(神棚)과 불단도 훌륭하게 꾸며져 있다. 이 방은 도장(道場)이자 교실(敎場)이며, 거실이자 침실이고, 오락실이자 식당이다. ...중략... 현재 숙생은 20인 반(半)이다. 반은 숙생 S씨의 귀여운 아이이다. S씨는 미망인이다. 이곳에 오자마자 혼담이 나와서 매우 즐거운 상태다. 숙생들은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다. 대부분이 여학교출신이기 때문에 별도의 뒤치다꺼리 없이 일체 자치적 훈련을 하고 있다.

1943년 극산개척여숙 1기 숙생 사사키 하루코(佐佐木春子, 당시 20세) 또한 한 개의 큰 방을 취침·생활·강연 등의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했다.<sup>25)</sup> 큰 방에 모여 재봉을 하고 있는 오창개척여숙 입숙생 사진에서도 개

24) 阪本牙城, 1940, 『開拓花嫁學校漫書訪問』, 『新滿州』第4卷 第12号, 124-127쪽;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227쪽, 재인용.

25) 극산개척여숙은 부엌이 딸린 건물로 의자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었다. 건물은 숙식을 해결하고 개척단 단장이나 관리가 강화(講話)를 하는 집회소로도 활용됐다. 陳野守正, 1992,

척여숙 시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만주개척여숙은 한 번에 20~30명의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방 하나를 다목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진3〉 재봉작업을 하는 오창개척여숙 입숙생들



출처: 滿州寫真館 五常, [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

사카모토 가조는 미망인 s의 혼담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하여 개척여숙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관심을 높이려 했다. 사카모토 가조는 이어서 안배개척여숙 입숙생들의 하루 일과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침5시에는 일어난다. 아침예배는 개척단과 같은 의식으로 치른다. 2배2박수1배(二拜二拍手一拜)로 동쪽을 망배(遙拜)하고, 여숙의 강령을 제창하며 이야사카산조(弥榮三唱)를 한다. 그 다음은 라디오체조다. 체조 도중 황급히 달리는 여성이 보인다. 뭐지? 하며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가마솔의 냄비 된 장국이 넘쳤기 때문이었다. 여숙스러운 풍경이다. 예배가 끝나니 모두 부산하게 움직인다. 청소담당은 다다미방을 쓸어낸다. 전등 청소 담당은 화로뚜껑을 닦고 신단(神棚) 담당은 신단을 정성껏 정리한다. 땀나무 담당은 큰 도끼를 높게 들어 땀나무를 켜다. 물 걷기 담당은 우물이 멀고 물이 무거운 바람에 표정이 일그러진다. 취사 담당은 본부에 달려가 밥을 짓고 된장국을

『大陸の花嫁-『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167-170쪽. 안배개척여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방을 다목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끓이고 큰 양배추를 자른다. 바쁘다 바빠. ... 중략...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작업이다. 호미를 들고 풀을 베러 가거나 제초를 돕는다. 수확을 응원하기도 한다.<sup>26)</sup>

사카모토의 글을 통해 시범단계의 안배개척여숙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결혼 입식에 필요한 훈련보다는 정신훈련과 실습 훈련을 병자한 청소 및 풀베기와 같은 개척단 잡무를 도왔다. 동쪽을 향한 망배는 만주에서 천황이 있는 일본을 향해 절하는 것으로, 정신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라디오체조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개조해서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때 필요한 신체훈련과 정신훈련을 목표로 구상된 것이다. 당시 입숙생이 외쳤다는 이야사카산조도 라디오체조처럼 정신훈련의 일환으로 고안된 후 만주농업이민 전개에 따라 확대 실시됐다.<sup>27)</sup> 이야사카산조는 이야사카(いやすか, 변영)를 세 번 연달아 외치는 것으로, 당시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 등에서는 반자이(ばんざい, 만세) 대신에 이야사카를 외쳤다. 만주개척여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개척여숙 훈련내용이 최초로 정리된 자료는 1941년 일본 척식성 척북국이 발행한 『만주개척이민개요(滿洲開拓民概要)』 제6(항) 『여자척식상황(女子拓殖狀況)』이다. 개척여숙 훈련은 농업실습 및 가사실습에 비중을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척무훈련소의 훈련내용은 내지훈련과 현지훈련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여자청년학교 교과와 같은 보통학과와 농업실습, 농산가공실습, 가정교육을 기본으로 가사, 작법, 가정위생, 요리 등을 주로 훈련한다. 훈련기간은 단기는 2개월, 장기는 6개월이다.”<sup>28)</sup>

26) 阪本牙城, 1940, 『開拓花嫁學校漫畫訪問』, 『新滿州』, 第4卷 第12号, 124-127쪽;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228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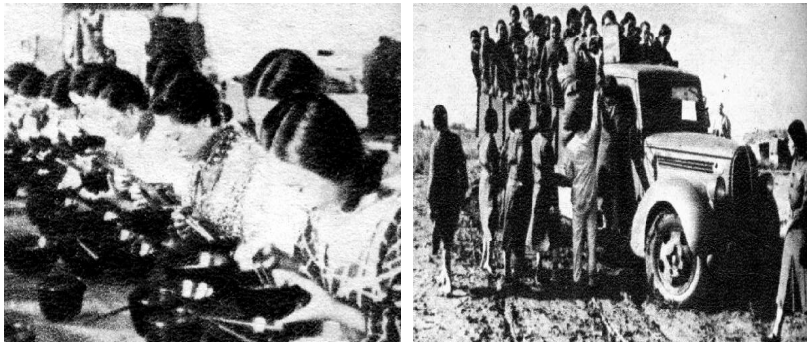
27) 中房敏朗, 2017, 『1920年代から1930年代における「日本体操」の展開過程について：國民高等學校の創始から滿洲開拓移民の展開に至る過程に着目して』, 『JAIRO』 참조.

28) 權狀態, 1941, 『第六女子拓殖狀況』, 『滿洲開拓民概要』, 『滿洲開拓資料』; 第2輯, 拓務省拓北局, 56쪽.

하지만 훈련은 개척여숙 별로 다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40년~1941년까지 쿠마이 타케요가 운영했던 안배개척여숙에는 개척지 정착에 필요한 훈련과 만주 현지 생활지도 모두 시행되지 않았다. 입숙생들이 숙장 쿠마이 타케요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쿠마이 타케요는 “당신들은 성인이니 상호 훈련을 하세요.”라며 일축했다.<sup>29)</sup>

안배개척여숙 숙장 쿠마이 타케요는 실습훈련에 관여하지 않고 정신교육에 중점을 뒀다. 때로 기독교 성서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여 훈화를 하기도 했다. 안배개척여숙 2기 입숙생 치도리(ちどり)는 숙장 쿠마이 타케요의 목적은 개척단·의용대의 배우자 확보였기 때문에 수업보다는 개척단의 트럭을 타고 주변 개척단을 견학하는 일이 주요 일과였다고 회고했다. 그녀에 따르면 개척단 견학은 주변 개척단의 미혼 남성들에게 입숙생을 선보이려 한 것이었다.

〈사진4,5〉 오창개척여숙 조식 시간(좌)과 개척단 견학을 준비하는 입숙생들(우)



출처: 滿州寫眞館 五常, [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

만주개척여숙은 기존의 여자척식강습회·강습소의 전국적인 실시와 대륙신부 모집 민간인 협력자 여자척식지도원 양성에도 만주 개척단원 배우자 수요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관동군은 만주 현지에 배

29) 杉山春, 1996, 앞의 책, 80쪽 참고.

우자 훈련소를 설립해 여성들이 입숙하면 훈련 수수료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신부 확보에 이용하려 했다. 관동군원안에서 출발한 만주개척여숙은 신부 송출이 국내 문제로 비화할까봐 우려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시범단계부터 거치게 됐다. 만주개척여숙 설립이 정책으로 명시되었던 기본요강 제정 직전인 1939년 가을과 기본요강 제정 직후인 1940년 7월에 시범 사업의 성격을 띤 개척단 부속 신부양성소가 소위 ‘개척여숙’이라는 이름으로 2개소 개설되었다.<sup>30)</sup>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2개소의 만주개척여숙의 높은 성혼률은 만주개척여숙의 본격적 설립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이 2개소의 비용보조 및 운영·경영 방식은 이후 만주개척여숙에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 2개소의 초기 만주개척여숙은 개척단장 쿠마가야 및 쿠마이 타케요와 같은 민간협력자가 설립하고 만주국 개척총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탁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sup>31)</sup>

## 2. 만주개척여숙의 발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 노동력 확보 중요성이 증대했다. 전쟁으로 인해 이민 응모자가 줄어들었고 전황이 악화돼 이민사업 수행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sup>32)</sup> 일본 척무성은 추가 이민자 확보를 위한 <20년간100만호송출계획 제2차5개년계획>(1942)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1937년 발족한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는 의용대 개척단으로 재편돼 만주로 송출됐다. 의용대 개척단 편성이 늘어나면서 개척민 배우자 수요도 증가했다.

30) 滿州國通信社, 1941, 앞의 책, 96쪽 참고.

31) 滿州國通信社, 1941, 앞의 책, 96쪽 참고.

32) 蘭信三, 1994, 『「滿州移民」の歴史社會學』, 行路社, 50쪽.

〈표4〉〈20년간100만호송출계획 제2차5개년계획〉(1942년) 년도 별 개척민  
배우자 수요 추정치

년도	개척농민	의용대개척단	합계
1942년	5,708	1,156	6,864
1943년	6,524	2,948	9,472
1944년	7,745	5,599	13,544
1945년	8,426	8,574	17,000
1946년	8,923	12,366	21,289
<b>합계</b>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殖省拓北局, 142쪽.

1942년 2월 9일, 마츠오카 슌조(松岡俊三)의원은 제79회 제국의회 중의원 청원위원회에서 만주에 대규모의 여자 송출을 제도화하는 <만몽개척여자 훈련제도창설에 관한 청원(滿蒙開拓女子訓練制度創設に關する請願)>을 제출한다.<sup>33)</sup> 정부 관계자는 마츠오카 슌조의 청원 사유를 청취한 후에 여자송출대책에 대한 예산·시설 확충을 약속했지만 의용군 제도와 병행한 여성의 훈련, 즉 만주로의 여성 송출을 제도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범단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추후 철저한 연구를 희망한다고 우회적으로 거절했다.<sup>34)</sup>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같은 해 3월 척무성은 신부양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만주개척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滿洲開拓女子拓殖事業對策要綱)>을 발표한다. 이 요강은 기존의 여자척식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관민 일제의 강고한 조직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5)</sup> <만주개척여자척

33) 그는 청원 사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0만호의 개척민송출은 당연히 백만인의 좋은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 백만인 송출은 단순한 계몽, 선전, 평범한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용군제도에 병행하는 여자훈련소제도를 설치해서 많은 여성의 적극적 만주 진출을 도모하고, 완전한 개척정책의 수행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杉山春, 1996, 앞의 책, 58~59쪽.

34) 杉山春, 1996, 앞의 책, 58~59쪽.

35) 개척여숙 응모자격은 일본에 거주하는 만17세 이상에서 25세 이하의 독신여성, 고등소학교졸업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자, 농업에 종사 할 강한 의지를 가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이틀이다. 실제로 여성 본인이 입숙을 희망해도 부모의 반대로 인해 도만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따라서 모집을 담당한 여자척식지도자

식사업대책요강> 발표 직후인 1942년, 척무성 척북국 보도과(拓務省拓北局輔導課)는 <여자척식지도자제요>를 작성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당시(1942년)까지 설립된 개척여숙 현황을 정리했다. 나아가 <개척여숙요령(開拓女塾要領)>을 통해 내지 훈련소보다 결혼·입식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만주개척여숙의 증설을 결정한다.<sup>36)</sup>

<표5> 개척여숙 설립 장소 및 현황<sup>37)</sup>

명칭	소재지	경영주체	수용인원	출신현명
安拜開拓女塾	北安省鐵驪縣	第七次安拜開拓團	40	宮城
北五道崗開拓女塾	東安省密山縣	第六次北五道崗開拓團	30	山形
王家屯開拓女塾	牡丹江省木蘭縣	第八次王家屯開拓團	30	長野
王榮廟開拓女塾	北安省綏綏縣	第七次王榮廟開拓團	30	香川
樺林開拓女塾	牡丹江省寧安縣	第八次樺林開拓團	30	同縣
南朝陽川開拓女塾	濱江省五常縣	第九次南朝陽川開拓團	20	廣島
郡上開拓女塾	吉林省舒蘭縣	郡上集合開拓團	20	岐阜

출처: 拓務省拓北局輔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223쪽.

또한 <여자척식지도자제요>부터 일본 순혈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척무성은 여자척식사업 목표에 ‘야마토 민족의 순혈(大和民族の純血) 보존’을 포함

들은 입숙 후보자들의 부모를 찾아가 도만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대륙신부 확보에서 부모의 찬반 여부가 결정적이었으므로, 이들의 설득을 담당할 여자척식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의 전폭적인 모집을 위해 여자척식기구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각 부현에 ‘만주개척민배우자알선협의회(이하 알선협의회)’가 설치됐다. 회장은 부현의 지사 또는 학무부장, 회원은 배우자 송출에 관계된 공무원 및 여자지도자였다. 척무성은 알선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알선협의회를 사업의 참모 본부로 삼았다. 이 처럼 보다 많은 여성을 만주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확충·정비된 여자척식기구는 만주이주협회, 대일본청소년단, 대일본부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운영됐다. 拓務省拓北局輔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135-139쪽.

- 36) 더불어 일본 내 여자척식훈련소 5개소 증설도 결정했다. 당시 일본 내 여자척식훈련소는 8개소였다.
- 37) 여자척식지도자제요에 따르면 군상개척여숙만이 여자척식지도 담당자를, 나머지 만주개척여숙은 신부를 양성했다. 그러나 군상개척여숙에서 어떤 교육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拓務省拓北局輔導課, 1942, 앞의 책, 223쪽.

시키고 여성들을 ‘아마토 민족의 순혈 보호자로 양성해야’하고, ‘한 방울의 혼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며 여성들이 ‘혈액방위부대’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의 신체와 출산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관여가 시작된 것이다.<sup>38)</sup> 일본은 1940년대 여성신체의 자원화를 위한 여성동원을 위해 복고적 여성관을 선전에 활용했다.<sup>39)</sup> 이 시기 탄생한 만주개척여성은 이 복고적 여성관을 만주 개척지에 이식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1942년부터는 개척지 순혈보호 확장 논리가 등장한다.<sup>40)</sup> 척무성은 <여자척식지도도자제요>에서 순혈주의에 입각해 여성 이민자들의 역할을 3가지로 나눴다. 첫째, 개척정책 수행의 일익으로써 민족 자원 확보를 위해 개척민의 정착성을 증강하고 민족자원의 양적 확보와 함께 아마토 민족(大和民族)의 순혈을 확보할 며 일본 부도(婦道)를 대륙에 이식하여 만주 新문화를 창설한다. 둘째, 농촌공동체의 여성으로써 의식주문제를 해결하여 개척지 가정문화를 만든다. 셋째, 개척가정의 주부로서 개척농민 좋은 조경자(助耕者), 개척 가정의 좋은 위안자, 제2세(第二世)의 좋은 보육자 역할을 해낼 것을 주문했다. 만

38) 일본을 비롯한 파시스트 국가는 성별 역할분담을 유지한 채 사적영역의 국가화를 목표로 삼는 전략을 취했다. 이런 분리형 젠더 전략에서 국가는 여성에게 병력 출산과 경제전쟁 동참을 기대했다. 일본은 여성에게 모성의 생물학적 기능인 출산 및 양육,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의 담당자, 군국주의와 징병제에 협력하는 ‘애국적인 어머니’ 등의 면모를 요구하며 여성을 전사회체에 편입했다. 박경수, 김순전, 2008, 『일제말 전시총동원체제하의 <후방소설> 연구- 헌신과 희생의 국가주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321쪽.

39) 일본은 1940년 신체제를 선포하고 국민총동원 체제로 돌입했다. 이 시기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복고적 여성관이 대두하였다. 복고적인 여성관은 여성에게 출산·생식 역할과 가정에 충실한 ‘부인’의 모습을 강조·강요한다. 이러한 여성관과 관련 선전은 여성신체를 자원화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한 여성의 거부감과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平井恒子, 1941, 『復古的女性觀』, 『明日の女性』, 長崎書店, 11-12쪽; 荻野美穂, 2008, 『資源化される身体: 戦前・戦中・戦後の人口政策をめぐって』, 『學術の動向』, 21쪽 참고.

40) 일본의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일본인과 현지인의 접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혼혈 관련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 이때 우생학은 개인 생식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일본은 혼혈 문제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본 본토에서는, 혼혈아가 생물학적 측면에서 더 우수하지만 국민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총체적 역량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혼혈인들을 거부했다. 반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혼혈인이 현지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우수하고, 통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정선, 2013, 『전시체제기 일제의 총동원정책과 ‘내鮮混血’ 문제』, 『역사문제연구』, 29, 251쪽 참고.

주개척여숙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선 1942년, 만주개척여숙은 초기 개척민 배우자 공급이라는 역할을 넘어 일본 여성성과 일본 민족의 순혈을 만주 개척지에 이식한다는 목적을 갖기 시작한다.<sup>41)</sup>

오족협화를 주창하던 만주국에서 혼혈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 이유는 일본 정부 및 관동군의 순혈주의 지향 성향 뿐 아니라 당시 만주국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잠재적 위협국인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조선과 중국의 항일무장투쟁이 멈추지 않던 만주국에서 혼혈의 확장은 쉽게 수용하기 힘든 문제였다. 그래서 1944년 전황 악화로 인한 만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홋카이도에서 만주 개척민을 선발하면서도, 정작 홋카이도 군수산업에는 조선인·중국인을 동원했다.

한편 만주개척여숙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1943년, 일본은 <개척여숙설치요강(開拓女塾設置要綱)>을 제정한다. 여기서는 개척여숙 설립목적을 “적극적으로 개척청년 배우자와 여성 대륙추진자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개척지구 중견 여성 양성훈련을 진행한다.”고 적시하고 <여자척식지도자제요>(1942년)에 비해 모집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신부 예정자뿐 아니라 만주 이민사업에 참여할 여성 및 만주건설근로봉사대<sup>42)</sup>까지도 포함했다. <개척여숙요령>(1942년)과 <개척여숙설치요강>(1943년)의 개척여숙 설립 목적 및 훈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41) 여자척식사업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던 1942년, 척무성은 입숙생 모집을 주관하는 여자척식지도자 지침서를 통해 개척지 내 여성의 순혈보호자 역할을 강조한다. 당시 개척여숙 입숙생은 남성개척단 정신적·육체적 안식자 역할과 더불어 순혈의 보호·확산도 요구 받았다. 만주개척여숙은 일본인 순혈을 위해 일본 여성 생식력을 동원하는 신부 조달소의 역할과, 일본의 ‘여성상’을 만주에 공급하는 노동 공급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1945년까지 계속 증설했다.

42) 관동군은 만주개척여숙 설립을 구상할 때 만주건설근로봉사대도 함께 개척여숙에 입숙시키고자 했다. 그 이유는 첫째, 만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둘째, 봉사대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그들의 입숙경험을 입숙자 모집 선전에 활용하고, 셋째, 여성봉사대원 스스로가 신부 후보(候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만주근로봉사대 참가를 계기로 개척지 결혼 입식을 위해 만주개척여숙에 입숙한 사례도 있다. 만주건설근로봉사대원은 임기 종료 이후 귀국 혹은 현지 체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만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陳野守正, 1992, 앞의 책;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참조.

〈표6〉 〈개척여숙요령〉(1942)과 〈개척여숙설치요강〉(1943) 비교

〈개척여숙요령〉(1942년)

목적	개척여숙생의 심신강달의 특성에 부응하여 견실명량한 개척민 배우자의 자질을 육성훈련 함을 목적으로 무엇보다 실천적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내용	1. 황민수련. 2. 생활훈련. 3. 협화훈련. 4. 농업. 5. 가사. 6. 정조훈련.



〈개척여숙설치요강〉(1943년)

목적	훈련은 여자적식민으로써 필요한 영농 및 가사실습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부락의 중견부녀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내용	1. 황민수련. 2. 협화훈련. 3. 생활훈련. 4. 농사. 5. 가사. 6. 정조훈련.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殖省拓北局;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0-211쪽 참조하여 재구성.

1942~1943년까지 발표된 개척여숙 훈련내용에서 주목할 지점은 정신훈련과 개척단 작업을 보조하는 실습훈련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0~1941년 시기에는 특별한 훈련 과목이 없었고 개척단 작업 보조 및 주변 개척단과의 교류, 정신 훈련 등이 입숙생의 주요 활동이었다.

초기 대륙신부는 대부분 농촌 출신이자 개척단원들의 고향 지역 출신이었다. 고향 출신 여성들은 개척단원들의 현지 적응을 쉽게 도울 수 있고, 일정한 농업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농지 개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틀렸다. 개척여숙 선전을 위해 안배개척여숙을 방문했던 한 기자가 입숙생들이 호미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개척 사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며 염려할 정도였다.<sup>43)</sup> 초기 입숙생들이 농촌 출신이면서도 결혼 입식 후 농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만주개척여숙 증설과 더불어 개설(1942년)된 훈련과목에 일정 부분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입숙 여성들은 개척단 작업 보조 뿐 아니라 실습훈련도 겸하게 됐다. 1943년 극산개척여숙 입숙생 사사키 하루코에 따르면 극산개척여숙에서의 교육은 개척정신 주입, 농업실습, 수신(修身), 국어, 만주어,<sup>44)</sup> 가사,

43) 杉山春, 1996, 앞의 책, 80쪽.

위생, 육아 등 당장 활용 가능한 훈련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훈련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또한 주변 개척단 방문, 잡초 제거, 요리실습 등의 활동도 했다. 초기 만주개척여숙 입숙생과는 달리 개척단 작업 보조뿐 아니라 결혼 입식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도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 입숙생들은 개척단이나 의용대의 의복을 수선했는데 이 시기에는 군복 수선이 잦았다고 한다. 밤에는 반야심경을 송창(誦唱)하고 9시에 소등했지만 램프를 쓸 수 있어서 편지를 쓰는 등의 활동이 가능했다.<sup>45)</sup>

1943년 제정된 <개척여숙설치요강>을 통해 만주개척여숙이 1942년 7개소에서 12개소로 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개척여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1943년 개척여숙일람표

명칭	소재지
北五道崗開拓女塾	東安省密山縣北五道崗開拓協同組合內
<b>龍瓜開拓女塾</b>	<b>東安省林口縣龍瓜</b>
<b>勃利開拓女塾</b>	<b>勃利縣勃利青年義勇隊訓練所</b>
<b>五常開拓女塾</b>	<b>濱江省五常縣五常街</b>
王家屯開拓女塾	濱江省木蘭縣王家屯開拓團內
<b>裕德開拓女塾</b>	<b>濱江省巴彥縣開裕德開拓團內</b>
王榮廟開拓女塾	北安省綏綏縣王榮廟開拓團內
<b>老街基開拓女塾</b>	<b>北安省通北縣老街基開拓協同組合內</b>
郡上開拓女塾	吉林省舒蘭縣小城郡上開拓團內
<b>札蘭屯開拓女塾</b>	<b>興安總省布特哈旗札蘭屯村</b>

44) 극산개척여숙의 만주어 수업 개설은 당시 훈련을 담당했던 교원들의 성향이 반영된 학과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척단에 따라서는 중국인 소작농과 일본어로 소통하거나 개척민이 간단한 중국어를 배워 소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시기 운영되었던 발리여자의용훈련소의 여성들은 어학 수업에 대한 증언이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극산개척여숙의 만주어 수업도 마찬가지로 숙장과 교원에 영향을 받아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45) 陳野守正, 1992, 앞의 책, 167-170쪽.

명칭	소재지
龍山開拓女塾	龍江省鎮東縣龍山開拓團內
東宮開拓女塾	三江省鶴立縣宮城開拓協同組合內

참고: 1942~1943년 사이에 신설된 곳은 색을 입혀 표기하였음.

출처: 滿州國通信社, 康徳11年・昭和19年版, 『開拓女塾設置要綱(康徳10年度)』, 『配偶者招致訓練』;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0-211쪽 재구성.

이 시기 개척여숙은 증설과 해체를 동시에 겪는다. 안배개척여숙(安拜開拓女塾), 화림개척여숙(樺林開拓女塾), 남조양천개척여숙(南朝陽川開拓女塾) 총 3개소가 해체되고 8개의 개척여숙이 신설됐다. 이와 같은 신설·해체 과정에서 개척여숙은 1940년 설립 이후 1942년까지 약 90%에 달하는 성혼율을 보였다.<sup>46)</sup>

〈표8〉 개척여숙설치수·입숙생수·현지혼인자수

년도	개척여숙설립수(누계)	입숙생수	현지혼인자수(%)
1939	1	7	7(100%)
1940	2	53	18(34%)
1941	3	100	90(90%)
1942	8	330	297(90%)
1943	12	452	-

46) 1940년 성혼율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1941년 만주국통신사 자료는 1940년 북오도강 개척여숙 30명, 안배개척여숙 18명의 여숙생을 ‘보았다’고 적었다. “北五道崗は約三十名、安拜は十八名の入所者を見” 滿州國通信社, 1941, 『配偶者の訓育』, 『滿州開拓年鑑昭和16年版』; 藤澤忠雄 著,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 96쪽. 여기서 ‘보았다’가 여숙생의 입숙을 뜻하는지 혹은 결혼 입식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만주국개척여숙 선행연구에서도 1940년 성혼율을 34%(18명)으로 서술한다. 1940년도 성혼율과 만주국통신사 자료의 ‘보았다’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면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한 추정이 필요하다. 일본 칩북국 보도과가 작성한 『여자척식지도자재료』는 1940년 안배개척여숙에 23명이 입숙해서 18명이 결혼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성혼율 통계에 잡힌 18명은 안배개척여숙 결혼 입식생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주국통신사 자료의 ‘보았다’는 결혼 입식을 의미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만주국통신사 자료에서 30명의 여성을 ‘보았다’고 적시한 1940년 북오도강 개척여숙의 여성 30명 역시 결혼 입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년도	개척여숙설립수(누계)	입숙생수	현지혼인자수(%)
1944	-	-	-
1945	16	309	-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223쪽; 滿州國通信社, 康德11年・昭和19年版, 『開拓女塾經營方針(康德11年度)』;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1-212쪽;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戦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234쪽 참고 재구성.<sup>47)</sup>

1943년부터 만주개척여숙 응모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는 만주개척여숙의 입숙생 모집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43년 제81회 제국회의 귀족원 청원위원회는 ‘만몽개척여자의용대제도창설<sup>48)</sup>’을 청원한다. 만몽개척 청소년의용대처럼, 여자개척의용대를 발족하여 여성 대량 송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결국 보다 많은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1943년부터는 ‘의용대훈련소’라는 명칭으로 만주개척여숙을 설립하며 신부 훈련소의 성격의 은혜를 시도한다.濱江省 오창개척여자훈련소 건설에 힘을 보탠 카구바리시게루(角張繁)의 발언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신부여숙은 아무래도 직접적이지가 내가 여자훈련소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여자척식지도자들이 결혼의무조항을 입숙생 모집의 걸림돌로 인지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모집 선전과정에서의 결혼의무조건 선전 은혜·축소정황은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쿠마이 타케요의 비서로 근무하던 개척여숙생지도자 이토 카기에(伊藤カギエ) 역시 결혼의무조건 선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주에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고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홍보한다면 그 누구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여성은 결혼의무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7~18세 입숙생들은 별 생각 없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겠죠.<sup>49)</sup>

47) 1943~1945년 기간은 결혼 입식 관련 통계·서술이 부재하여 성혼률을 확인할 수 없다.

48) 藤沼敏子, 1998, 『年表: 中國歸國者問題の歴史と援護政策の展開』, 中國歸國者定着促進センター, 11쪽.

이와 같은 발언은 여자척식지도자 및 양성기관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결혼의무조건을 은폐·축소해서 입숙생을 모집했음을 시사한다. 1943년 최초로 의용대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동안성 만주개척여자의용대 발리훈련소의 당시 소장 쿠마이 타케요는 훈련생 모집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면서 “신부여숙도 여러 가지 탄생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겨우 여자의용대훈련소까지 성장했다.”<sup>50)</sup>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장’이라는 단어가 신부여숙이라는 초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1943년 발리여자의용훈련소에 입소했던 여성들도 이전의 개척여숙 입숙생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강권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sup>51)</sup> 다시 말해서, 1943년의 만몽개척여자의용대제도창설은 대륙신부확보라는 만주개척여숙의 목적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숙생 모집의 어려움과 모집 방법의 기만적 성질을 방증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만주개척여숙은 1943년에 절정기를 맞이했다. 만주국 내 소개하던 천 여 개의 개척단 중 16곳에 만주개척여숙이 세워졌다. 입숙 응모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고 만주개척여숙의 명칭은 만주개척여자의용대 훈련소로 달리 표현되었다. 당시의 이 변화는 신부 훈련소로 기획된 만주개척여숙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결혼알선과 강권이 존재했었다. 1943년에 진행된 입숙대상자 확대와 만주개척여숙 명칭 변화는 입숙자 확보를 위한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다.

49) 杉山春, 1996, 앞의 책, 126쪽.

50)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2쪽.

51) 杉山春, 1996, 앞의 책, 106쪽. 코모리 하츠(小森潑津, 1922년 출생, 군마현 출신)는 쿠마이 타케요가 소개한 결혼 대상자가 와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거절했다. 그러자 쿠마이 타케요는 “병이 있어도 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결혼을 강권했다고 한다. 코모리 하츠는 “신부학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결혼을 강요할 줄은 몰랐다”면서 당시를 회상하였다. 귀국 비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에 응했지만 남편은 결혼 반 년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 Ⅲ. <개척여숙경영방침>과 만주개척여숙의 성격 변화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 대본영은 만주에 주둔하던 관동군 75만 명을 남방으로 전개하고 만주 지역의 인력 부족을 개척단의 청장년들을 소집하여 채웠다. 이 ‘싹쓸이 동원’으로 인해 개척단에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만이 남게 되었다.<sup>52)</sup> 만주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개척단 내 여성 단원 및 개척여숙 입숙생들이 남성 노동력을 대체해나간다. 싹쓸이 동원으로 인해 일본과 만주 일대의 미혼 남성 규모가 줄어들면서 만주개척여숙 역시 1944년부터는 대륙신부 사업 부응이라는 성격이 약화된다. 개척단 남성 위안 및 출생·육아 등의 일본 여성성(性) 이식 사업이 남성을 대신하는 여성 노동력 보충 사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만주행을 선택한 한 여성은 “전쟁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동원되면서(일본)마을에 결혼하지 못한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많았다. 29살에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대신할 만큼 멋진 직업을 선택하자”라는 각오로 하얼빈의 개척보건부양성소를 들어갔다고 한다.<sup>53)</sup>

싹쓸이 동원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전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4년 <경영방침>을 제정하여 개척여숙을 20개소까지 증축하기로 결정한다. 본 장에서는 경영방침의 내용과 이 시기 입숙했던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1944년 이후부터 개척여숙이 신부 조달소로서의 역할보다 후방 노동력 조달소로서의 역할로 그 주요 운영 목적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만주통신사는 만주개척여숙 경영방침을 소개하면서 1944년 이전까지의 개척여숙 현황을 정리하고 개척여숙 증설과 입숙자 증원을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52) 김영숙, 2013,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2, 266-268쪽.

53) 陳野守正, 1992, 앞의 책, 176쪽.

개척여숙은 1940년 시범단계를 거쳐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하게 됐다. 개척여숙은 개척단에 부설한다. 내지 및 현지에서 입숙생을 모집하며 한 개 숙(塾)에 약 30을 수용하고 훈련기간은 1년이다. 1941년 3개소를 추가 개설하고 100명이 입소했고, 1942년 8개소 추가 개설 330명 입소, 1943년 12개소를 추가 개설하고 452명이 입소하였다. 41년과 42년 사이에 입소자의 90프로가 개척지에서 결혼했다. 1944년도는 증설을 계획함과 동시에 각 여숙 수용 인원을 50명으로 증가시켜 20개소 1000명을 달성하고 동시에 이에 병행하는 기혼자 훈련에 대해서도 고려한다.<sup>54)</sup>

〈표9〉 개척여숙 및 입소자 수(예상치 포함)

년도	개척여숙(누계)	인원
1939	1	7
1940	2	53
1941	3	100
1942	8	330
1943	12	452
1944(예상치)	20	1000

출처: 滿州國通信社, 1941, 『配偶者の 訓育』, 『滿州開拓年鑑 昭和16年版』; 藤澤忠雄 著,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 95-96쪽;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1-212쪽 재구성.

경영방침에서 주목할 점은 개척여숙 훈련에 기혼자 훈련을 포함한 점이다. 1943년 개척여숙설치요강의 설립 목적 및 대상이 1944년에 들어 변화한 것이다. 경영방침은 “개척여숙은 만주개척 제2기5개년계량(第二期五ヶ年計量) 실행목표 측면에서 개척지 중견여성의 단련을 행하는 것 외에 개척민 자녀의 정주(定住) 및 여자흥아운동의 작흥에 응하여 경영을 할 것”이라고 운영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입숙 대상자로는 개척단원 신부 대상자 뿐 아니라 개척민 자녀와 여자흥아교육생의 중견자<sup>55)</sup>를 포함시켰다. 개척여숙

54) 滿州國通信社, 康徳11年・昭和19年版, 『開拓女塾經營方針(康徳11年度)』;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2쪽.

55) <만주개척여자적식사업대책요강>(1942년), <청소년대흥아운동실시요강>에 따라 <여자

입숙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표10〉 개척여숙 입숙 대상자 변천

1942년 응모대상자	신부예정자, 료보, 만주건설근로봉사대원
1943년 응모대상자	개척민배우자, 여성 대륙진출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희망하는 자
1944년 응모대상자	배우자로 입식해야하는 자, 개척민자녀, 여자홍아교육생의 증견자 <sup>56)</sup>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殖省拓北局;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1-212쪽 참고 재구성.

1942년 만주개척여숙 입숙 대상자는 신부예정자, 개척민의 배우자가 될 여성 즉 대륙신부 희망 여성이었다. 1943년이 되자 ‘대륙진출 추진력을 높이고자 희망하는’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만주개척여숙 입숙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1943년부터 개척단자녀의 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됐다. 이와 관련한 인력 확충을 시작했고 1944년에 이 인력을 만주개척여숙 입숙대상자로 적시한 것이다.<sup>57)</sup> 이는 만주개척여숙의 역할이 만주 내 일본 순혈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인력 조달소에서 기존 개척민 배우자 및 자녀의 정주(定住)를 도모하고 만주 내 노동력을 보충하는 노동력 조달·양성소로 변모했음을 뜻한다. 그래서 1944년 이후 입숙자들은 1940~1943년 입숙생들과 달리 결혼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1944년 용산개척여숙(龍山開拓女塾)에 입숙한 모모에(百枝, 당시16세)의 증언에 따르면, 출병을 목적으로

청년단홍아운동요강>이 만들어졌다. 대륙신부 및 개척여숙 입숙생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3항 ‘개척사업 참가협력’ 부분이다. 여기서 여성역할의 중요성 인식, 여성의 대동아 각지 진출 역량 양성,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적색사업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 협력 등을 적시하고 있다.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323~327쪽.

56) 배우자로 개척단에 입식하려면 홋카이도 장관 또는 부현지사의 승인, 개척민 자녀는 개척단 단장 또는 조합장의 승인, 여자홍아교육생의 증견자에는 부현홍아교육단체의 승인이 필요했다. 杉山春, 1996, 앞의 책, 130쪽. 1938년 이후 홋카이도(北海島) 농업이 만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의 많은 농업인과 농업전문가가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 이민사업에서 홋카이도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또한 1944년부터 일본 본토 공습이 시작되면서 개척민 송출 향로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만주개척여숙 입숙에 홋카이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57) 滿州國通信社, 康德11年・昭和19年版, 『開拓女塾設置要綱(康德10年度)』, 『配偶者招致訓練』;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0쪽.

만주로 건너가 반년간의 입숙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일했다고 한다.<sup>58)</sup> 같은 시기 입숙한 다른 입숙생은 남성 동원 이후 맞선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즉 이 시기 입숙생들은 맞선알선 등의 결혼 압박을 크게 받지 않고 대신 전선으로 동원된 개척지 남성들을 대신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모모에(百枝)는 당시 입숙생활에 대해 “오전4시에 일어나, 별초작업이나 밭일에 전념하다가 새빨간 태양이 지평선에 가라앉을 즈음, 노래를 부르며 숙소에 돌아오는 그런 하루 하루를 지속했다.”고 증언했다.<sup>59)</sup> 숙장 내지 교육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정신교육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 시기 입숙생들은 대체로 초기 입숙생처럼 정신교육과 실습을 병자한 노동력 보조로 하루 일과를 채웠다.<sup>60)</sup> 또한 입숙생들의 군부대 위문 방문이 잦아졌고 일과에서 군복 수선이 차지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듯 전황이 악화되면서 교육 내용이 초기 만주개척여숙과 유사하게 정신교육과 개척단 작업 보조로 간결해진 것이다.

상술했듯이 만주개척여숙 초기의 높은 성혼율은 관계자들의 결혼강권 및 강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 점은 만주개척여숙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만주건설근로봉사대와 비교하면 더욱 선연히 드러난다.<sup>61)</sup> 1941년 만주개척연감은 만주건설봉사대 여자청년대에 대해서 ‘귀국 후 만주 이민사업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해 의용대 개척단원의 배우자, 다시 말해 대륙신부 정책에 기여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계몽활동이라는 것은 여자척식지도제요에서 제기된 어머니 계몽과 같은 뜻으로 이민사업에 대한 선전활동을 의미한다. 만주건설근로봉사대의 목적은 개척여숙과 달리, 부족한 노동력 보충 및 일본 귀국 후 만주 이민사업에 대한 선전 및

58) 『靜岡新聞』, 2015.2.12., 「<轍>大陸の花嫁(3) 戰況惡化後も宣伝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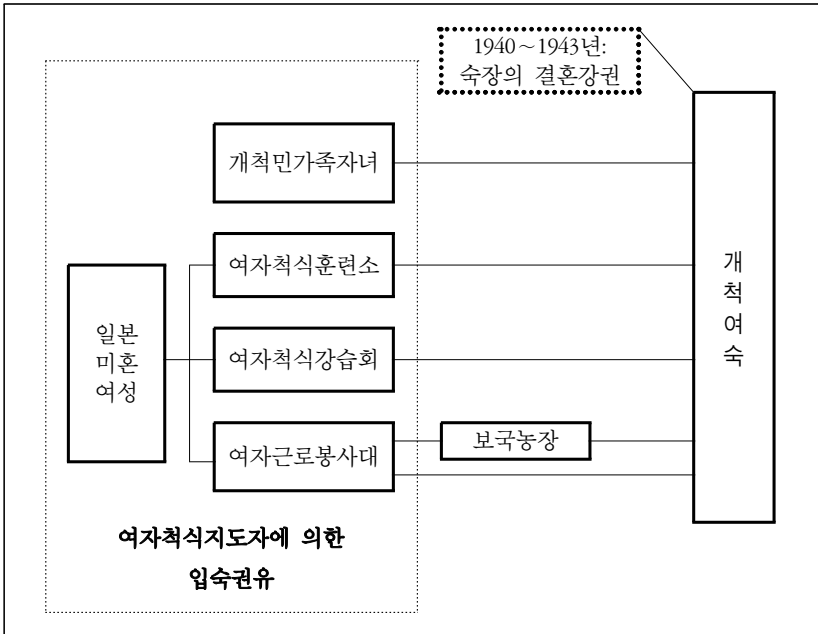
59) 『靜岡新聞』, 2015.2.12., 「<轍>大陸の花嫁(3) 戰況惡化後も宣伝繼續」.

60) 쿠마이 타케요는 기독교 성경을, 극산개척여숙 교육자들은 반야심경을 정신훈련에 활용하였다.

61) 만주근로봉사대원 여성 일부는 개척단 부설인 보국농장에서 남성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고 가축을 길렀다. 보국농장 생활을 계기로 개척여숙 입숙하여 개척단에 결혼 입식한 여성도 있다. 大森直樹, 1996, 앞의 책, 149쪽.

신부 후보 역할이었다. 따라서 만주건설근로봉사대의 여성들은 개척단 부설 보국농장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지참해서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또는 잔류 및 계약연장, 개척단원과의 결혼 결정의 권리도 보유했다. 그러나 개척여숙은 애초 개척민 배우자 조달이 목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여자척식지도자 지침서인 <여자척식지도자제요>에서는 개척여숙 훈련 수료 후에 결혼 알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도자들은 입숙 후 3개월부터 결혼을 알선하라고 적시하였다.<sup>62)</sup> 이에 따라 만주개척여숙 설립자 및 전임지도원은 훈련 수료도 하지 않은 입숙생들에게 결혼을 강권했다. 이 시기를 통괄해 만주개척여숙 입숙 과정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만주개척여숙 입숙 경로



출처: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 - 『満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大森直樹, 1996 『満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 戦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杉山春, 1996, 『満洲女塾』, 新潮社, 静岡新聞 등의 수기자료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62) 拓務省拓北局輔導課, 1942, 『第九節 開拓女塾』,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222쪽.

당시 개척여숙 입숙생들이 결혼을 거절하고 귀국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도만 비용과 입숙 생활비는 지원됐지만 귀국 비용은 지불되지 않았다. 빈농출신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던 입숙생들이 귀국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귀국 여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대다수 빈농 출신 입숙 여성들은 현지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척민 배우자 확보를 위한 관동군의 개척여숙 기획 목적이 적중했음을 보여준다.

만주개척여숙의 경영 및 경비보조의 윤곽은 1939년과 1940년의 시범 단계 때 만들어졌다. 만주개척여숙의 증설이 결정된 1941년에는 만주국 개척총국 예산을, 1942년부터는 일본정부와 만주국정부의 경비 부담 항목이 결정됐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입숙생의 도만준비비 및 도만비 80엔을 부담했고 만주국정부는 만주개척여숙 운영 비용을 부담했다. 1939년에서 1942년까지 운영 경비 보조 내역은 조금씩 세분화 되어 1943년에는 체계를 갖추었다.<sup>63)</sup> 1944년부터는 경영·운영주체와 경비보조 내용도 변화했다. 먼저 1943년과 1944년 경영·운영주체 변화를 살펴보자. 개척여숙 설립 절정기인 1943년 개척여숙설치요강에는 당시의 개척여숙 사업 전반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개척총국을 여숙 사업 집행의 관리 주체로, 설립자와 개척협동조합과 지방단체를 경영 주체로 명시했다. 그러나 1944년 경영 방침에서는 “개척여숙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개척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 조성을 구하고 지도자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며 1943년도 사업 주체였던 개척총국에 대한 언급을 빼고 경영주체를 성과 현으로 규정한다.

63) 滿州國通信社, 1941, 『配偶者の 訓育』, 『滿州開拓年鑑 昭和16年版』; 藤澤忠雄 著,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版, 96쪽; 權狀態, 1941, 『第六女子拓殖狀況』, 『滿洲開拓民概要』, 『滿洲開拓資料 ; 第2輯』, 拓務省拓北局, 56쪽 참고.

〈표 11〉 정책별 경영·운영주체 변화

년도	경영주체	경비보조
1943	설립자, 개척협동조합, 지방단체 * 만주국 개척총국 (사업집행 관리주체) <sup>64</sup>	일본 정부: 준비비와 도만 비용
		만주정부: 식비, 사무비, 전임지도자의 급료, 잡비 기타: 신설비의 일부 보조, 설립자의 물적 시설비, 다른 과에 대한 필요 경비 책임
1944	성·현립(省·縣立) 원칙	일본 정부: 훈련생비
		기타 보조 주체: 설립자, 성·현(省·縣), 만주국 정부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殖省拓北局;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0-211쪽 참고 재구성.

경비보조 주체 역시 변화한다. 1943년에는 만주국 개척총국이 개척여숙의 사업관리 주체였기 때문에, 개척여숙 설립자는 매년 업무보고서(計書)와 수입·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에 개척총국에 제출해 개척총국장인 유키 세타로(結城清太郎)에게 결제를 받아야했다. 운영 비용은 일본과 만주국이 분담했다. 일본 정부는 준비비와 입숙생 도만 비용을, 만주국 정부는 훈련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반적인 잡비를 부담하는 체계였다.<sup>65)</sup> 1944

64) 이민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만주국정부는 1935년 7월 민정부에 설치된 척정사(拓政司)를 1939년 1월 1일 개척총국으로 개명하고 산업부로 확대·설치했다. 이를 통해 만주국 정부는 개척 관련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설립 초기 개척총국(開拓總局)은 총무, 척지, 초간의 3개의 부서로 구성됐다. 총무처는 총국 전체를 관리하고 용지 취득업무를 총괄하며 총무과, 경리과, 계획과, 토목과를 운용했다. 총무과는 국내 인사와 문서 관련 사무, 경리과는 예산 관련 사무, 계획과는 미사용토지개발계획 및 이민입식계획 등의 정책 관련 사무, 토목과는 토지 취득, 관리 및 처분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다. 척지처는 토지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조사과와 사업과를 운용했다. 조사과는 취득한 미사용토지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사업과는 토지개발공사의 시행 및 농업수리사업의 지도 관찰을 관장했다. 초간처는 일본인·조선인 이민 사무 및 중국인 국내이동을 관장하고 감리과, 훈련과, 제1지도과, 제2지도과, 제3지도과를 운용했다. 관리과와 제1지도과, 제2지도과, 제3지도과는 각종 계획사업을 총무처에 이관하고 척정(拓政) 업무를 계승하고 훈련과를 신설해 청소년의용대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개척총국에는 총국장 1명, 처장 3명, 이사관 11명, 기정(技正) 4명, 사무관 24명, 기좌(技佐) 12명, 속관(屬官) 60명, 기사 34명 등 총 149명의 직원이 있었다. 小都晶子, 2006, 『日本人移民政策と「滿州國」政府の制度的對應 - 拓政司、開拓總局の設置を中心に』, 『アジア經濟研究所』, 47卷4号 참조.

65) 식비가 보조됐지만 식량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다. 개척단 내부의 식량 공급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년부터는 설립자와 성과 현이 기본 경비를 부담하고 만주국은 일정 금액의 보조, 일본 정부는 훈련생 비용을 보조한다.<sup>66)</sup> 1944년에 들어와서 만주개척 여숙 경비보조 주체는 늘었지만, 여전히 만주국이 만주개척여숙 운영비용을 전담했다. 이런 비용 전가 현상은 1940년 4월 1일新京(新京)에 설립된 만몽 개척청소년의용대훈련본부에서도 나타난다. 만주개척청소년의용군 현지훈련소에 대한 비용보조 주체 역시 만주국, 만주척식공사<sup>67)</sup>, 남만주철도주식회사였다. 만주국은 현지훈련소의 위생시설과 통신 교통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무기와 탄약 제공을 책임졌다.<sup>68)</sup> 이처럼 만주국 정부는 만주척식공사와 개척총국 설치를 통해 일본인 만주 이민정책에 제도적으로 깊게 관여했다.

1944년 경영방침에서는 부현(府縣)이 협력해서 매년 10개소의 개척여숙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비록 전황의 악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패전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1945년까지 설립·운영됐던 개척여숙은 다음과 같다.

〈표12〉 1944~1945년 개척여숙설립현황(16개소)

명칭	소재지
北五道崗開拓女塾	東安省密山縣北五道崗開拓協同組合內
<b>龍瓜開拓女塾</b>	<b>東安省林口縣龍瓜</b>
<b>勃利開拓女塾</b>	<b>勃利縣勃利青年義勇隊訓練所</b>
<b>五常開拓女塾</b>	<b>濱江省五常縣五常街</b>
王家屯開拓女塾	濱江省木蘭縣王家屯開拓團內
<b>裕德開拓女塾</b>	<b>濱江省巴彥縣開裕德開拓團內</b>

66)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211쪽. 일본 정부 경비 보조 내역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67) 만주척식공사(滿洲拓殖公社)는 1937년 8월, 만주로의 농업이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개척용지의 취득·관리, 개척지의 생산물 판매알선, 개척민에 대한 자금 대부 및 물자 지급 등을 관장했다. 1939년 만주국 산업부 산하에 개척총국이 신설된 후 개척총국의 감독을 받았다.

68) 高樂才, 2007, 『日本“滿蒙”青少年移民訓練所及其功用』, 『日本學論壇』, 總第183期, 11쪽.

명칭	소재지
王榮廟開拓女塾	北安省綏綏縣王榮廟開拓團內
老街基開拓女塾	北安省通北縣老街基開拓協同組合內
郡上開拓女塾	吉林省舒蘭縣小城郡上開拓團內
札蘭屯開拓女塾	興安總省布特哈旗札蘭屯村
龍山開拓女塾	龍江省鎮東縣龍山開拓團內
東宮開拓女塾	三江省鶴立縣宮城開拓協同組合內
克山開拓女塾	北安省克山縣克山街北區
嫩江開拓女塾	北安省嫩江縣
新京開拓女塾	新京特別市
山市開拓女塾	東滿總省寧安縣
興安開拓女塾	興安總省西科前旗
<p><b>년 중설 계획 秋梨溝 寧安 克山 安慶 嫩江 에 따라 개소가 증설됨</b>  <b>극산개척여숙은 년 기생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운영 되지 않음</b>  <b>신경개척여숙은 년 쿠마이 타케요가 설립·운영함</b></p>	

출처: 天野良和,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滿州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 - 『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재구성.

이상의 만주개척여숙은 시범 단계에 형성된 운영 방침을 기초로 하여 개인 주도(여자적식지도자 혹은 만주 각지 개척단 단장)로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 운영됐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방증된다. 첫째, 1942년 쿠마이 타케요가 신설된 오창개척여자훈련소의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녀가 설립했던 안배개척여숙이 해체됐다. 둘째, 1943년 입숙했던 여성의 증언 기록은 남아 있지만 정부 공식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개척여숙도 있다. 삼풍개척단(三豊開拓團)부속으로 설립되었다고 일본 신문에 보도된 삼풍개척여숙(三豊開拓女塾)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1944년까지 꼼꼼히 개척여숙의 현황을 정리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누락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개인 주도로 설립하고 이를 보고하면 일만 양국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1943년 운영된 극산개척여숙의 훈련내용이나 개척여숙의 분위기는 같은 시기 운영되었던 쿠마이 타케요의 개척여숙과는 달랐다. 극산개척여숙은 만주어를 가르치고, 결혼 강권을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의 훈련 수료 후, 현지 잔류나 귀국의 선택이 자유로웠다고 한다. 위탁 운영의 결과, 만주개척여숙의 구체적인 정책 부응 방식과 훈련내용은 개척여숙의 설립자와 전임지도자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 운영된 개척여숙이라고 할지라도 정책의 실현 방식과 그 분위기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4년 전황악화에 따라서 개척민 남성들의 동원이 시작됐다. 만주 개척지 일대의 미혼남성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만주개척여숙의 성격이 변화했다. 당시 만주 농업이민 사업 전반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44년 개척여숙 역시 일단의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즉 만주개척여숙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발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만주 이민사업 붕괴라는 상황에 휩쓸려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일본 여성의 만주 대량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관동군이 구상한 만주개척여숙의 설립·발전·변화를 정책 자료와 입숙생들의 증언을 통하여 재구성해 검토했다. 만주개척여숙은 만주에 일본인 여성성(性)을 공급하기 위해 관동군이 기획하고 여자척식지도자 및 개척단 단장이 설립·위탁 운영한 만주 현지 대륙신부 훈련소였다. 일본 정부와 만주국 정부는 개척여숙 입숙생 모집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보조했다.

만주개척여숙은 남성 개척단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위안을 제공할 신부의 대량 확보를 목적으로 고안되고 설립됐다. 만주 개척지에 여성들을 동원해서 일본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이식하려는 시도였다. 시범단계였던 1939

~1940년, 본격적인 대륙신부 조달소의 역할을 한 1941~1943년, 후방 노동력 기지로 역할이 변화한 1944~1945년까지 만주개척여숙 입숙 여성들은 만주 개척지에서 다양한 ‘일본’ 여성성을 요구받고 실천해야만 했다.

만주개척여숙은 1939~1940년의 시범단계 2개소에서 높은 성혼률을 보여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되기 시작했다. 1942년부터 만주 개척단의 신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자척식사업 협력 기관의 조직화가 진행됐다. 또한 이 시기부터 만주개척여숙 입숙자 및 개척지 입식 여성들에게 출산을 통한 개척지 내 ‘아마토 민족’의 순혈 유지·확장의 역할이 부여됐다.<sup>69)</sup> 우생학의 영향으로 일본 내지의 순혈과 세력권의 혼혈이 용인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개척지 여성들에 대한 순혈강조는 만주국만의 특성이었다.

만주개척여숙 입숙은 읍·촌장, 만주시찰대로 다녀온 교사들의 추천, 여자척식강습회에 참가, 선전물<sup>70)</sup>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입숙생 증언에 따르면 입숙생 대다수가 모집 과정에서 결혼의무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숙을 결정했다. 이는 만주개척여숙 입숙생 모집을 전담하던 여자척식지도자들이 많은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모집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욕구와 애국심을 자극하는 한편, 만주 현지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소·은폐 선전 전략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만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내막을 모르고 만주로 이주한 만주개척여숙 입숙생 상당수는 귀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

69) 만주 개척지의 순혈 유지·확대를 위해서 이용되었던 만주개척여숙 입숙생 및 개척단 여성들은 패전 후, 일본의 순혈주의 때문에 비합법적 중절 수술을 극비리에 받아야만 했다. 만주로 보내진 여성들은 패전 후에도 국가의 순혈주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松田澄子, 2018, 『滿洲へ渡った女性たちの役割と性暴力被害』, 『生活文化研究所報告』第45号 참조.

70) 미치(ミチ, 秋田현 八郎瀨 농가 정미소에서 근무, 8형제 중 4째)는 <지나의 밥>이나 <열사의 맹세>등의 영화를 보고 만주에 대한 동경을 품었다. 다른 입숙생 키미에(君恵)는 1943년 <家の光>라는 잡지에 게재된 오창여자훈련소 소개괄을 보고 남성들처럼 만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도만을 결심했다. 그녀는 “훈련소가 신부학교라는 것을 몰랐다. 잡지에는 그런 사실이 적혀있지 않았다. …중략… 그냥 젊을 때 남성들처럼 촌 동네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었다.”며 타케요에게 편지를 받고 도만을 결정했다. 그녀는 도만을 부모와 논의하지도 않았다. 杉山春, 1996, 앞의 책, 97~99쪽.

기 만주개척여숙이 일본 내지훈련소보다 훨씬 높은 성혼율을 달성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와 같은 만주개척여숙의 선전활동은 당시 대륙신부 희망 여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1944년, 전황이 악화되고 개척민 남성들까지도 전장되자, 만주개척여숙의 운영 목적은 후방 노동력 확보와 양성으로 변화한다.

만주개척여숙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입숙생을 모집하고 결혼을 앞선하면서 만주국과 일본의 정책에 부응했다. 하지만 만주개척여숙을 경험한 많은 입숙생들은, 비록 원하지 않았던 결혼으로 괴로웠지만 만주개척여숙을 통해 당시 (빈농 출신) 여성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겪을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들은 만주개척여숙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욕망을 실현할 하나의 통로로 인식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숙자들은 결혼 의무조건을 알았든 혹은 몰랐든 도만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회고한다. 많은 입숙생들은 자신을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정책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가담한 가해자로 위치시킨다. 만주개척여숙 입숙자들의 이런 복합적 면모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 여성 동원과 만주 이민의 해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한국어 문헌

- 기요카와 코지, 2004, 『일본으로부터의 만주농업이민』, 『만주연구』 1
- 김경옥, 2011,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시노동관리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34
- \_\_\_\_\_, 2013,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인구정책 - 여성의 역할과 차세대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7
- 김기훈, 2002, 『일제하 ‘滿洲國’의 移民 政策 研究 試論: 일본인 移民 ‘獎勵’ · 朝鮮人 移民 ‘統制’ 정책 형성의 배경』, 『아시아문화』 18
- \_\_\_\_\_, 2013,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 이상과 현실: 국적법 논쟁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 김려실, 2013, 『만주영화협회의 ‘계민영화(啓民映畫)’ 연구: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7
- 김영숙, 2010, 『1930년대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와 농업 개량』, 『한림일본학』 17
- \_\_\_\_\_, 2013,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 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2
- 蘭信三, 2010, 『日本人滿洲移民の生きた世界: その記憶と経験』, 『만주연구』 10
- 박경수 · 김순전, 2008, 『일제말 전시총동원체제하의 <후방소설> 연구: 헌신과 희생의 국가주의 윤리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7
- 박이진, 2014, 『아시아의 망령, 귀환자의 ‘전후’: 아베 고보 ‘인어전(人魚伝)’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5
-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
-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18
- \_\_\_\_\_, 201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1
- \_\_\_\_\_, 2017,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 간노 마사오(菅野正男) 『흙과 싸우다(土と戦ふ)』(1940)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 안태운, 2003,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 양인실, 2013,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민 표상』, 『일본비평』 8
- 유필규, 2014, 『1940년대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의 설치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 이성우, 2012, 『전시체제기(1937~1945년) 일제의 농촌통제정책과 그 실상 - 忠南 靑陽郡 木面の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60

- 이영아, 2012, 『예쁜 여자 만들기』, 푸른역사
- 이정선, 2013, 「전시체제기 일제의 총동원정책과 ‘內鮮混血’ 문제」, 『역사문제연구』 29
- 임성모, 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 103
- 임영언·이화정, 2012, 「일본인의 동북아시아지역 이주역사와 귀환 연구」,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 장보고 CEO 포럼』
- 전경선, 2011, 「만주국의 신체동원과 국민만들기 - 체육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39
- \_\_\_\_\_, 2014, 「중일전쟁기 만주국의 여성동원-만주국방부인회의 결성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117
- \_\_\_\_\_, 2017,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진」, 『만주연구』 23
- 최경순, 2012, 「만주 개척이민사에서 소외된 일본의 피차별부락민 : 高橋幸春, 1995, 『絶望の移民史-滿洲へ送られた「被差別部落」の記録』, 毎日新聞社(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4
- 최영호, 2013,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 같지도 않고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일본비평』 8
- 현무암, 2013, 「‘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일본비평』 8

## 2. 중국어 문헌

- 高樂才, 2007, 「日本“滿蒙”青少年移民訓練所及其功用」, 『日本學論壇』, 總第183期
- 李淑娟; 王希亮, 2015, 「日本的大陸擴張与“滿洲開拓”女性」, 『學術交流』
- 孟月明; 張洁, 2012, 「日本“開拓團”中“大陸新娘”」, 『炎黃春秋』
- 石艷春, 2010, 「日本“滿洲移民”中的女性」, 『社會科學輯刊』
- \_\_\_\_\_, 2011, 『日本“滿洲移民”社會生活研究』, 高等教育出版社
- \_\_\_\_\_, 2014, 「日本“滿洲移民”時期的庄內型移民——以大和村爲例」, 『齊齊哈爾大學學報』
- 孫炜, 2016, 「抗日戰爭時期日本的“大陸花嫁”」, 『史學月刊』
- 王青, 2011, 「日本侵華期間“大陸新娘”政策研究 (1931~1945)」, 『首都師範大學』
- \_\_\_\_\_, 2011, 「日本侵華期間“大陸新娘”政策的提出」, 『首都師範大學學報』
- 張洁; 孟月明, 2011, 「東北淪陷時期日本“大陸新娘”政策述評」, 『人民論壇』
- 張曉麗, 2015, 「用“大陸新娘”安撫移民」, 『遼寧日報』
- 鄭穎, 2014, 「后殖民主義視角下的“偽滿洲國”日本女性:以牛島春子爲中心」, 『大連大學學報』
- 政協黑龍江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1991, 『政協黑龍江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夢醉滿州:日本開拓團覆滅前後》(黑龍江文史資料第三十輯)』, 黑龍江人民出版社
- 左學德, 2000, 「日本對滿洲農業移民政策的演變」, 『貴州師範大學學報』

### 3. 일본어 문헌

- 加納實紀代, 1994, 『滿洲と女たち』, 『岩波書店講座 近代日本と殖民地5(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 古久保さくら, 1997, 『「近代家族」としての滿洲農業移民家族像-「大陸の花嫁」をめぐる言説から』, 『女性學研究』 5
- 權狀態, 1941, 『滿洲開拓資料 ; 第2輯』, 拓務省拓北局
-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嫁はどうつくられたか : 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 渡邊洋子, 2002, 『1940年代前半期の女子青年団運動の指導理念と事業(I) : 「國民化」とジェンダーの問題を考える手かかりとして』, 『京都大學生涯教育學・図書館情報學研究』
- 藤沼敏子, 1998, 『年表 : 中國歸國者問題の歴史と援護政策の展開』, 中國歸國者定着促進センター
- 藤澤忠雄 著, 1992,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版
- 蘭信三, 1994, 『「滿州移民」の歴史社會學』, 行路社
- 鈴木裕子, 1990, 『從軍慰安婦・内鮮結婚』, ドメス出版
- 滿洲國通信社, 1996,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 康德7年・昭和15年版』 第31卷, 不二出版
- 杉山春, 1996, 『滿洲女塾』, 新潮社
- 小都晶子, 2006, 『日本人移民政策と「滿州國」政府の制度的對応 - 拓政司、開拓總局の設置を中心に』, 『アジア經濟研究所』, 47卷 4号
- 松田澄子, 2018, 『滿洲へ渡った女性たちの役割と性暴力被害』, 『生活文化研究所報告』 第45号
- 安志那, 2016, 『帝國の文學とイデオロギー-滿洲移民の國策文學』, 世織書房
- 若桑みどり, 2000, 『戰爭がつくる女性像 : 第二次世界大戰下の日本女性動員の視覺的プロパガンダ』, 筑摩書房
- 外務省移民局, 1964, 『海外移住統計』
- 劉含發, 2001, 『滿洲移民の入植による現地中國農民の強制移住』, 『現代社會文化研究』 21
- 荻野美穂, 2008, 『資源化される身体 : 戰前・戰中・戰後の人口政策をめぐって』, 『學術の動向』
- 情報局編輯, 1940, 『寫眞週報』 第148號, 內閣印刷局印刷發行
- 井出惠太郎, 2001, 『滿洲農業移民事業の展開』, 『立命館大學經濟部』
- 中房敏朗, 2017, 『1920年代から1930年代における「日本体操」の展開過程について : 國民高等學校の創始から滿洲開拓移民の展開に至る過程に着目して』, 『JAIRO』
-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 - 「滿洲」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舎
-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 天野良和, 1992,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滿洲開拓年鑑 4』 第34卷, 不二出版
- 平井恒子, 1941, 『明日の女性』, 長崎書店

#### 4. 영어 문헌

Duara, Prasenjit, 2014,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Watt, Lori, 2009, *When Empire Comes Hom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in Postwar Japa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Takemaro, Mori, 2004, "Colonies and Countryside in Wartime Japan: Emigration to Manchuri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2(6).

#### 5. 신문기사

『静岡新聞』

2015. 2. 9, 「<輻>大陸の花嫁 (1) 夢斷たれ壯絶な逃避行」  
<http://www.at-s.com/sp/news/article/women/series/32548.html?news=32543>
2015. 2. 10, 「<輻>大陸の花嫁 (2) 苦難と絆 揺れた半世紀」  
<http://www.at-s.com/sp/news/article/women/series/32550.html?news=32548>
2015. 2. 12, 「<輻>大陸の花嫁 (3) 戦況悪化後も宣伝継続」  
<http://www.at-s.com/sp/news/article/women/report/32543.html>
2015. 2. 13, 「<輻>大陸の花嫁 (4 · 完) 語り継ぐ血と涙の記憶」  
<http://www.at-s.com/sp/news/article/women/series/32732.html?news=32550>

『開拓』

1941. 4.

#### 6. 기타

NHK ETV 특집 「告白～滿蒙開拓団の女たち～」(2017년 8월 9일)

NHK는 특별제작드라마 「開拓者たち」(2012년 4월)

NNN 다큐멘터리 「記憶の淵」(2015년 12월4일)

NNN 다큐멘터리 「奥底の悲しみ」(2016년 9월26)

TBS 특집드라마 「強行歸國～忘れ去られた花嫁たち」(2012년 10월)

TBS 특집드라마 「紅十字－女人們的紅紙信」(2015년)

watashiのNext Waveを探して: <https://nextwave100.net>

アーカイブス中國殘留孤兒・殘留婦人の証言: <http://kikokusya.wixsite.com/kikokusya>

滿州寫真館: [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http://www.geocities.jp/ramopcommand/_geo_contents_/080426/gojyou.html)

日本テレビ NNN 다큐멘터리 「滿州へ花嫁を送れ 女子拓務訓練所」(2013년 8월 4일)

■ Abstract ■

The mobilization of women under the Japan during  
Manchukuo Period:

Focusing on the case of ‘Manshū Kaitaku Onnazhuku(1940-1945)’

Kwag, Kyuhwan (Jilin University)

Kim, Haelim (Jilin University)

This article studies the local training centres of ‘Kaitaku Onnazhuku’ for Migrant Brides in Manchukuo. Manshū Kaitaku Onnazhuku was a dormitory-type training centre designed by the Kwantung Army to nurture and procure spouses for Japanese male settlers who moved to Manchuria. Private partner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Kaitaku Onnazhuku, while the Japanese and Manchukuo governments financially supported the recruitment and emigration of women from the devastated rural regions to Manchuria and oversaw the operation of the centre. Founded in 1940, it served as the supplier of female spouses to Japanese male pioneers until 1943. As the male emigrants mobilized for the Pacific war in 1944, the women in the Kaitaku Onnazhuku served as labour force reserves in Manchuria.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changes in Kaitaku Onnazhuku’s character, goals and roles illustrate how the Japanese imperialism exploited the willingness of Japanese women from poor rural backgrounds to emigrate as reproductive capacity of women in Manchuria.

The training centre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private partners who were the leaders of the pioneer groups and leaders of the female colonial enterprise. Ther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raining centres in terms of methods used to achieve key policy objectives and techniques used to train women. These differences cannot be identified by policy alone.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major policies and testimonies from the women who were

trained in Manshū Kaitaku Onnazhuku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change of Kaitaku Onnazhuku. As such, the preceding study on “Migrant Brides” is insufficient to grasp the overall institutional changes of the Kaitaku Onnazhuku. For examining the Japanese empire’s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mobilization, the article focused on the substance of the Kaitaku Onnazhuku.

Key words : Migrant Brides, Women’s Colonial Enterprise(女子拓殖事業), Manshū Kaitaku Onnazhuku  
(滿洲開拓女塾), Kwantung Army, Kumai Takeyo(熊井竹代), Manchukuo, mobilization of  
women, the purity of Yamato minzoku blood (純血zhunketu)